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이강호
편집인 김성수
주필 김성수
외대신문사(02-962-7128, 961-4151)
외대 학보(02-965-7048, 961-4152)
130-791 서울 서초구 동원로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호평면 창선리
인쇄인 김성수

552호-1990년 11월6일(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주간)

THE OE DAE HAGBO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253호

1



외대 입지가 흔들린다

개방 파고에 열악한 국내 교육시장 황폐화 우려 외국대학·학원 침투로 본교도 막대한 피해 예상

UR협상 개시

86년 9월 우부와의 가트(GATT) 각료회의에서 발표된 우부와의 합의(이하 UR)협상 시한 '90년 12월 초'가 몇 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및 유입공동체(BC), 주요 농산물 수출국 집단인 케인스그룹 14개국의 무역장관들은 내일(7일)까지 상설회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11월2일(화) 아르투어 클레트 무역협정(이하 GATT) 사무총장은 무역협상위원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협상 중절 시한을 불과 한달 앞두고 목표와 현실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협상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항상 극적인 타격이 이루어지는 일반성에 비추어 볼때 이러한 가트 사무총장의 발언은 협상 개시를 위한 도종의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협상 타격에 대한 가장 현실적 예측은 각 경제권간의 이해 대립이 집중과 타협을 거친 뒤 오는 12월이 아닌 내년 초에 협상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그런 점에서 오는 12월 브뤼셀의 가트 각료회의는 UR협상의 형식적인 종결을 알리는 의례적인 모임이 되기 쉽다. 우리민족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UR협상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긴박하고도 절박한 시기에 UR협상종결만이라도 기다려 줄 것인가? 과연 UR은 농촌민족의 문제인가? UR은 우리가 느끼고 있듯이 전 경제의 일인가? 우리의 대응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가 피해 당사자로 보고 있는 농촌은 단지 UR협상으로 인해 생기는 첫 희생자인 따름이다. 즉, 결론적으로 UR협상은 농업·금융·서비스업등 국제경쟁력이 강한 산업을 바탕으로 세계경제구조, 무역정책의 재편을 노리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질서 재편·강화 전략인 것이다.

UR협상이 교육부문에 미치는 영향

제국주의국가 독점자본주의 아래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UR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금, 교육계및 본교 '한국외국어대학교'도 그 영향권에서 예외될 수 없는 것이다. UR협상이 어떻게 타격과든지 간에 앞으로 우리교육이 외국자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기본적인 UR이해의 바탕이 되는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볼때, 선진국들이 국내 진출을 다하는 교육부분은 우리의 사적교육비 지출이 매우 높아 영세성이 크고, 정부의 간섭력이 적어서 영리적 경영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아직 UR협상이 타격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선진국에서는 이미 우리나라 교육(가) 실태조사 작업을 마친 상태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시회교육, 어학연수원 뿐만 아니라 파산한 미 정부협상에서 대학본교 설립에 대한 개방을 요구해 왔으며, 호주 교육원은 마치 많은 경제에 특화시행까지 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일본도 일시적인 진출을 위해 타당성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프랑스는 미술과 요리부분, 이탈리아는 패션부분에 강한 진출 의사를 보이고 있다. 만약 협상이 타격된다면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 학원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편 외국대학 본교가 설치될 경우 국내대학과의 이질적인 학사운영과 교육내용으로 인하여 고등교육의 혼란과 저절화가 우려되며, 개인부담이 비싼 교육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오는 국가의 경제적 손실도 간파할 수 없다. 그리고 교육사태주의로 인하여 외국대학 선호경향이 예상되며 이에따라 유출된 교육비는 우리나라 영세대학의 운영비에 있어 교정확보를 초래할 것이다.



그밖에 교육개방에 따른 피해는 학원도산 뿐 아니라, 유아교육부분 침투, 교육관련 소프트웨어, 교육 등에 대한 로열티부담 증가, 단기비정규학교 개설 등으로 인해 교육산업의 파멸로 약 1355억원 상당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추정된다.

교육서비스 전면 개방에 있어 이러한 가시적 피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 본연의 특성에서 오는 것이다. 외국인 설립 학교에서 외국인 교사에게 외국교육 방식으로 외국교육을 가지고 공부하게 될 경우, 민족통일성 회복과 통일성을 시대의 제재로 안고 있는 우리 교육이 무분별한 외국의 교육에 의해 교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UR협상이 본교에 미치는 영향

본교는 현재 11개 단과대학에 어학원인 37개 학과를 포함, 60

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UR협상이 타격되어 막대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좋은 시설을 갖춘 외국대학 본교나 외국어 전문 학원이 들어올 경우 매우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본교의 위상확보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어학원이나 통역대학원, 어학연수원이 이미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경제의 지원에 힘입어 해외파견 공무원 및 무역상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단기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본교 어학연수원은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지도 모른다.

신지지는 'UR협상이 타격되면 우리의 문을 닫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는 현재 보편적으로 외국어에 대한 사회인식이 위축되고 관련인 실용적 필요성에 의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굳이 본교에 들어와서 외국어를 '4년동안' 공부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 비

롯된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타 대학에서 비어학 학문을 전공으로 하고 외국어는 사설과 교수법이 뛰어난 외국어학원에서 습득하면 된다는 견해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UR협상이 타격되어 단기적인 장기적인 교육의 전면 개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함께, 교육·학원·교육·모두가 제도를 이룬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외국어 전문대학이 참여하는 공·개·학·원·모두가 제도를 이룬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외국어 전문대학이 참여하는 공·개·학·원·모두가 제도를 이룬 것은 분명하다.

사설

신방과 사태를 보며

본교 신문방송학과에서는 11월5일(화) 과교수 학생 공동주최로 '김진홍교수의 양심교수 고발'에 대한 전산규명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이미 신문방송학과 교수들이 참가 거부 의사 표명을 하고 있어 이 공청회는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신방과 학생들은 87년 부터 김진홍교수 피진부장을 발인 결과, 88년 새로 부임한 박광수 총장은 당시 총장인 김진홍중임 학생대표에게 '자신의 임기내 복직 불가' 및 '신정희 피진'을 구두로 약속, 김교수 피진부장이 일단락 되었었다. 하지만 그후 2년이 지난 90년 1학기 김진홍교수가 다시 본교에 복직함으로써 연해 학생들의 김교수 피진부장은 또다시 제기되었고, 김교수는 88년 1월 본교 부설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원 김진홍연구원 '동생'으로 재계한 양심교수수의 논문과 관련 3년이 지난 90년 2월 그 당시 동료교수였던 양심교수(현 김진국 신방과 교수)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인해 학생들의 분노를 가시게 하였다.

신방과 학부대학원생들의 지난날 노력에도 불구하고 4년이 넘는 해를 보지 못하고 있고, 신방과 본과생들에 대한 교육활동 및 진로 대학원 진학에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지금, 전국대 신방과 학생들에게도 김교수의 고발사건과 관련된 사건정산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외대-전대 공동대행위' 구성에 적극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이 진정한 학문사회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할 '학원'이란 모든 학문의 끝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원칙과 함께 교수·학생간의 학문탐구를 위한 상호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의 신방과의 상황은 교수와 학생간에 상당한 불신의 벽이 쌓여있다.

더이상 학내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른 지금, 예에는 학원의 주인답게 학과장,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모두 이런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11월 총선거를 준비하자

11월이 접어들어 민자당은 지금 내부적 분열과 국민적 여론으로 인한 파당적인 초위기에 몰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소위 내각제 각자 유출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민자당의 내분은 사실상 10여개원전 창당때부터 예견되었던 민중-민주주의의 분열가능성이 가시화된 것인 셈이고, 정권연장을 위해 그들에게 원만한 것이었던 누구도 원하지 않은 내각제 개헌에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 수 없다.

국회의원의 각종 악법 남용과, KIS, 한대중공업, 새중대 등 무제한된 수 없는 정도의 민주정당에 대한 폭력적 탄압과 대대적 구속, 여기에 국민의 생존권 자체는 이제 전혀 위협적인 의지도 없고 동력까지 상실해 버린 민자당의 파멸적 행진만을 통해 그들은 국가의 살점을 단 하도 많은 자에게 있는 만 그대도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되어야 할 한 중의 반민주적인 행진이 확실시되었다.

분명, 민자당은 이제 역사적 장에서 몰락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개헌의 당면 과제로 의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당면도 없는 내각제 개헌 일사적 포기정신만으로도 무마될 일도 아니다. 오는 11월11일, 이날은 한 송이한 농동 열사의 분신기념일과사의 의미가 아니라,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파산한 민자당이 내각제 개헌과 민자당 해체를 의지로 모인 우리 사회 모든 국민의 민주화 의지에 불을 붙여, 뜨거운 11월 11일, 만드는 것만이 비폭력적인 역사를 바로잡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될 것이다.

지면 안내

- (4면) 학술기획-"교과서" "유형평가"이벤트 전개된 것인가
- (5면) 사회기획-내각제 개헌과 민자당의 행방
- (7면) 문화시리즈-노동자 운동운동이란 무엇인가
- (8면) 그림들보기-UR에 대한 설문 조사
- (9면) 심층분석-제14차 모의연공회 평가

제28회 외대문학상 마감 11월15일(목)로 연기

2000년대를 세계속의 기업 대한생명과 함께

대한생명은 젊음의 꿈을 더욱 소중히 생각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모집학과	인원	응시자격	근무지역
영입관리	상	450	1. 1962. 1. 1 이후 출생한 자	전국원인
	경	450	2. 4년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및 '91. 2월 회계제정자	
영입관리	상	450	3.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전국원인
	경	450	4. 현역의 경우 '90. 12. 31 이전 전적이 가능함	
영입관리	상	450	5. 해외여행에 경력이 없는 자	전국원인
	경	450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전형)
- (합격자에 한함) (합격자에 한함)

3. 서류전형

- 가.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당사 조정양식)..... 2종
- 대학 전학인 성적증명서..... 1종
-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990년 11월 21일(수) 14:00 각 접수처별 게시

4. 필기시험

- 가. 일 시: 1990년 11월 25일(일) 오전 09:00
- 나. 장 소: 덕수상업고등학교 행정자중학교
- 다. 시험과목: 영어, 상식

5. 지원서교부 및 접수

- 가. 교부기간: 1990. 11. 1(목) ~ 11. 10(토)
- 나. 접수기간: 1990. 11. 5(일) ~ 11. 10(토)
- 다. 교부 및 접수처

교부 및 접수처	주 소	전 화 번 호
본 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789-0212-5
부산 사	부산시 중구 대동 2-852-107	252-8521-3
광주 사	광주시 동구 금남로2가 6-1	232-0806-7
대구 사	대구시 중구 동원로2가 25-4	423-3701-10
부산 사	부산시 동구 호명 3동 1152-4	463-3053-8

6. 기 타

- 가. 우원접수는 본사로만 하되, 접수기간내 도착함에 한하여, 반드시 수험표 우송을 병부 (주소지, 우부부)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본교대상자는 가점혜택을 부여합니다.
- 다. 입사지원서는 본인인 직접 작성하여 작성하되, 자주 기재사항이 허위인사 관행인 경우 합격 (입사)을 취소합니다.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중앙초고 63층 대한생명사옥

투쟁속에 태어난 문화 투쟁으로 건설될 문화

두번째
노동자 문예운동이란
무엇인가 <공동체문화·
생활문화운동과의 비교
고찰>

1. 노동자라는 물려오고 있다. 생산의 현장에서 투쟁의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문화가 수직적은 것은 어디로든 힘겹게 팔자를 걸고 부치고 달리고 있다. 노동자들의 존재가치에 이르는 단초를 일관하는 기저라는 명제는 사라지고, 가진 자들이 누려왔던, 그들에게는 먼 곳의 예기치 않은 것들은 문화에 그들의 과학적 세계관을 담은 노동자 문화라는 것으로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흔히 문화란 예기할 때 인정된 역사적 단계, 공인된 생산력 발달 수준의 특정 단계에 의해 규정되는 인간 존재의 내용이 될 것이라는 이러한 개념 틀을 깨뜨려 왔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문화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문화운동이며 여기서 인본주의, 인본주의, 인본주의 등을 제외시키면 문화운동이라는 개념적 명칭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노동자 문예운동의 본질과 목적을 서술함에 있어 80년대 초에 제기되기 시작했던 공동체문화, 근간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생활문화운동을 함께 거론해 보기로 하겠다.

2. 공동체문화는 제기된 당시만 해도 우리문화운동에 비해 한 이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

문에 최초의 진보적 문화이념으로 등장한 공동체문화는 지니는 의미는 지대한 것이었다. 공동체 문화는 파피리언 자본주의 문화의 소비적, 피폐적, 비인간적 성격에 대항하여 참된 민중 문화의 모습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인간을 소비시키는 자본주의 문화와는 달리 「인간과 놀이기」 원조로써 결합된 생산 대중의 진정한 문화였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와 피폐적 문화에 대한 저항 문화로서의 진보성이 노동자 계급이 아직 자신의 독자적 문화와 이해를 가지고 등장하지 못했던 시기에 민중 문화 전례를 지도하는 역할을 발휘했고, 또 아직 제발로 서지 못한 노동자 문화에 사상적 지주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현상을 엿볼 수 있는 공동체에서 왔던 노동자 계급의 사상구조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동등계급의 배반이나 인간이 이루어진 모든 것을 지니는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다. 생활문화운동은 이렇게 광범위한 문화 개념을 그대로 도입하여, 자기에게만 관련짓는 문화가 아닌 구체적인 현실 문화에 해당하는 운동 형태를 얻기로 한 데서 비롯된 발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전 단계는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를 거스르는 또 한편의 후퇴를 가져왔다. 다시 말해 공동체 문화론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발전에 대한 끊임없이 해체의 위험을 내는 소부조자 계급의 문화인 때문이다.

3. 문화란 이론적으로 정선

작은 것이 소중합니다 ⑭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데이트는 없습니까? ○○는 정말 나쁜 놈이다. 나는 학생들에게서 사랑을 안고도 먹은적이 5년밖에 없는데 ○○는 15년이나 사랑을 안고도 밥을 먹었다. 정말 양심도 없는 놈이다. 라고 말한다.

한창 점심시간이 되어 사람들이 붐비는 식당에서, 식당 아주머니들이 밥을 떠서 손님에게 나눠주고 있다. 밥을 먹는 사람들이 한데 모였다고 할 수 있다. 학교가 편리하는 식당, 학생이 스스로 편리하는 식당을 할 수들이 편리하는 식당으로 운영이 되는데 식당을 내지 않는다면 마치 살아도 죽은 사람처럼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맛있는 점심이라면서 이젠 그만두고 싶었다던 주인을 기어코 식당에서 즐겁고 맛있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시라. 외대생들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문부화)



문화와 물질 문화로 나누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나눌 때의 문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상부구조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동등계급의 배반이나 인간이 이루어진 모든 것을 지니는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다. 생활문화운동은 이렇게 광범위한 문화 개념을 그대로 도입하여, 자기에게만 관련짓는 문화가 아닌 구체적인 현실 문화에 해당하는 운동 형태를 얻기로 한 데서 비롯된 발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전 단계는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를 거스르는 또 한편의 후퇴를 가져왔다. 다시 말해 공동체 문화론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발전에 대한 끊임없이 해체의 위험을 내는 소부조자 계급의 문화인 때문이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면 외세와 폭력 자본이 아니라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이 바로 문화의 지위를 띠지 않는 순수한 물질 문화와 찾아내기를 남산에서 김사방을 찾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커피 한 잔 팔다 한 잔에 도 제국주의와 맞부딪히는 판에 수많은 생활 용품들과 정열하게 투쟁하다 보면 과연 무얼 먹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생활문화론의 더 큰 문제점은 거기에 노동 대중의 문화적 잠재력에 대한 깊은 회의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즉 「예술 기원」을 찬양할 때만 해 생도와 한자에서 하루 대부분을 먹고 있는 노동 대중의 이러한 처지에 대한 침침한 고려의 수도 있지만 그것은 노동자 대중

의 문화적 현실에 대한 단순한 인정에만 그치는 것이 된다. 즉 노동자 계급은 노동자 계급의 사상과 노동자 계급의 계급적 정서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를 건설해야 한다. 역시 산적한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다. 본 공동체문화에서 우리는 좋은 아들이 아닌 공장의 아들, 산골 노동자의 정서를 토대로, 과거가 아닌 미래의 위대한 자를 위한 문화의 이상으로 하는 문화, 바로 노동해방문화라는 새로운 문화의 의미를 제기할 수 있고, 생활문화운동에서 보여지는 지체 계급이 강요하는 노동계급의 문화적 지평을 그대로 인정할 새 그들이 그 높은 태두의 내세에서 가늠할 수 없는 문화라는 것은 문화의 배반이며 그것은 단순한 인정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전된 문화운동에 복무하는 노동해방문화에 문화는 무기모색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면서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4. 그렇다면 노동자 문예운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공동체 문화다. 생활문화운동이 거스르는 소부조자로서의 계급적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 계급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생산자 문화의 긴장감을 담은 노동자 계급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전된 문화다. 그들의 삶이 현장에서 시작되고, 그들의 투쟁에 의해 단결되어진 생산 계급의 사

를 변화·발전시켜 나가는 놀라운 힘으로 만들어진 노동자들의 해방투쟁을 담은 문화다. 그리고 지체 계급에 의해 소외 당해 왔던 그들의 문화적 욕구를 분출해내는 삶의 양식이고 내용인 것이다. 지금은 형식이 있어 조악한 면이 많이 두드러지지만 노동자 문화와 진본 문화의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결속과 조직화를 통해 미진한 결속들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다.

노동 계급에 의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노동자 문예운동은 그들의 뚜렷한 계급적 당파성으로 인해 단순히 문화운동의 한 부분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문화운동들, 즉 발전하는 사회에서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공동체 문화, 소수적인 생산자의 문화적 욕구를 어느 단면에 국한시켜 버리는 생활문화운동에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정서를 담아내려 하고 해방의 미래를 지향하는 현재의 가장 진보적인 문화운동이다. 따라서 이 사회를 변화하는 가장 주된 주체는 노동자들이지만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모두가 될 것이다. 노동자문예운동은 궁극에는 소고야 말 우리의 해방투쟁을 향한 확고한 세계관 속에서 생겨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 나가야 할 문화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지배 계급으로 노동자를 규정하고 문화적으로 소외시킨 지체 계급의 색은 문화를 뿌리째 뽑아 버릴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하는 삶에서 태어난 노동자 문화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김영경 기자)

—서울 「세계 민속가요제」 취재
용인 「번안 민중가요제」 취재

번안가요제도 잘하는 외대생

간혹들 할아버지라는 옛날의 낱말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주간 서울과 용인, 양 평시에서는 사설제와 단체제가 학우들의 많은 관심속에 열려 드저는 열기가 가득했다. 특히 사설제와 단체제(창작제, 해동제, 애인제)에서는 학생제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제가 열렸는데, 그중에서도 「세계 민속가요제」와 「번안 민중가요제」는 어학계열 학우가 많은 우리 학교의 특성을 살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행사였다.

먼저 지난 11월1일(목) 서양대학 청백제와 동아대학 해동제 기간중 열린 「번안 민중가요제」는 우리 민족과 민중의 정서를 담은 우리의 민중가요들을 해방학회의 고유언어로 번안하여 부르는 가요제로서, 과와 단체의 특성을 살려 학생들이 학생회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며, 하나도 이루어진 수 있는 단체제 행사를 개최한다는 취지를 지니고 있는 행사다. 「단체제 12개과중 11개과가 참여한 이 번 가요제에는 학우들의 참여와 호응이 무척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지남대학과 미호대학이 앞장섰다. 또 지남대에 이어 2번째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체 단체의 특성이 발휘되는 고유한 행사로 정착시키기 위해 여러 부분에서 구체적인 형식적 틀을 잡는데 주안점을 두었었다. 그리고 말하는 서양대학과 문화부장 김현철(투마니아)3)은 앞으로 「번안 민중가요제」를 서양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날 명승양 아부비에서 서양대학 「번안 민중가요제」가 끝난후 열린 동아대학 「번안 민중가요제」도 비슷한 취지를 가지고 개최되었는데, 처음 개최된 해에서인지 7개과중 3개과만 참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동아대학 기획부장 박종호(중국어)3)군은 「처음 개최되는 행사라 학우들이 「번안 민중가요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 가요제가 지속적으로 개최된다면 학우들이 행사의 의미를 인식할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단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 계급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전된 문화에 발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동·서양대학에서 나란히 개최한 「번안 민중가

요제」를 앞으로 함께 개최하는 문화에 대해서 두 사람은 「이후 단체제에서 이번 가요제가 저를 자극하고, 두 단체에서 공동개회하는 데 대해 서로 공유가 된다면 충분히 논의를 할만한 내용입니다.」라고 말하며 「번안 민중가요제」가 각 단대의 행사라 아닌 용인 캠퍼스 학우 전체의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사시하여 주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29일(월)에 서울 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세계 민속가요제」도 많은 학우들의 호응과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열렸다. 어학계 전공학우가 많은 우리의 민속가요를 소개하고, 또한 우리의 민중가요를 번안하여 부르는 것으로 우리 민족문화, 민중문화의

특성이 잘 결합되어진, 외대의 본적이고 고유한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기쁨을 보여준 행사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대학 문화제들이 외부에서 도입된 행사나 흥미를 유도하는 행사들로 구성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행사들은 대학 자체내에서 꾸려진, 학우들 스스로 진정한 대학문화를 창출해 나갈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당위적으로 개최된다면 이러한 의미들은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민속가요제」와 「번안 민중가요제」가 앞으로 외대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기 위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행사에 대해 자생스럽게 여기고 판단위로 활발한 참여하는 자세인 태도라 할 것이다. (김연희 기자)



한편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삼양이 젊음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66년을 이어온 정열과 투지로 식음, 섬유, 기계산업에 건설하게 키워온 삼양—이제 새롭게 석유화학,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정밀기계—에 전진산업에 진출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개척자 정신으로 물리칠만한 물러서지 않아야 할 과감한 과감히 나아가는 진정한 용기를 지니는 삼양—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저명한 기술과 진정한 눈빛의 젊은이처럼 삼양은 전 세계 각국으로 보다 나은 내일,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SAM YANG GROUP

“24시간 공부하고 24시간 인생을 이야기하고 24시간 잠에 취할 수 있는 젊은이”

삼양은 내일을 기다리기보다는 내일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진취적인 젊은이에게 무한한 애정을 쏟습니다.

한인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삼양이 젊음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66년을 이어온 정열과 투지로 식음, 섬유, 기계산업에 건설하게 키워온 삼양—이제 새롭게 석유화학,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정밀기계—에 전진산업에 진출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개척자 정신으로 물리칠만한 물러서지 않아야 할 과감한 과감히 나아가는 진정한 용기를 지니는 삼양—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저명한 기술과 진정한 눈빛의 젊은이처럼 삼양은 전 세계 각국으로 보다 나은 내일,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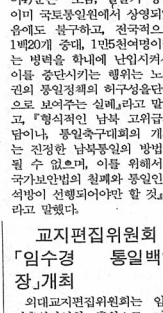
삼양

● 주식회사 삼양그룹 (화학, 석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정밀기계)
● 삼양화학 주식회사 (화학, 석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정밀기계)
● 삼양정밀 주식회사 (화학, 석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정밀기계)
● 삼양정밀 주식회사 (화학, 석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정밀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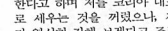
학생회관 진입, 2시간동안 격투 상영중단돼

에서 상영될 예정이었던 「**금**」, 「**탈출기**」, 「**꽃피는 처녀**」 등의 북한영화는 서울시립대 경희대 수원캠퍼스, 전남대 등 9개 대학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투입된 경찰에 의해 저당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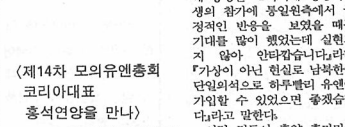
이에 대해 용인캠퍼스 총장 이영록(동학·아프리카



이렇게 대표로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다른 참가자들 보다 원고준비가 늦어지고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채 해결방안까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



다시피해서 겨우 맡게 되었습니다.'라고 뚜렷한 소신을 이



기하며, 그럼에도 가끔 주워서 『이왕 잉어로 발언하면 국대표로 참가하지 왜 코리 대표를 하나』는 말을 해 읊는 그들의 생각을 이해할 없었다고 말한다.

성하는 것이었는데, 남북 공중의 입장에서 중도적 입장을 내세워야 한다는 점이 무척 어려웠습디다.라며 『그렇지만 평소 애 진해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환경문제, 특히나 한반도 환경

자주언론위해 선전일꾼 매진해야

[illegible]

송갑석의장 구출, 내각제 저지 촉구

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2백10여명 중 고등학생들이 참가했는데 영어, 독어, 불어 3개 과목에 각각 70명씩 응시하여 외국어 여학생 휴게실에서 전국에 수집한 정몽주·선조대왕 묘진홍왕 순수비 등의 「탁본 사진」을 개최하였다.

금연특강 실시

리는 이번 건강특강은 '담배는 건강을 태운다'는 내용으로 서울 위생병원 금연학교 권승구 박사를 초청하여 금연관련 영 화상영과 함께 1시간30분동안 진행된다.

사법·행정고시

본교 2명씩 합격

◎서울, 목요음악반 정
음악회

* 영화상영안내(11월6일(화)~11월12일(일))		
영화명 날짜	서울캠퍼스	웅인캠퍼스
6일(화)	부 용 진 (美 鎗 鎗)	산국 애프터아워즈(After Hours)
7일(수)		집해자
8일(목)	특 제 자	미시침보원
9일(금)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 (The Spy Who Loved Me)
12일(일)	(The Great Dictator)	
상영시간	매일 오후3시, 사정각일	매일 오후2시, 어문학관
매 회 료	매인 무료(2200여)	비대오류(1406여)

* 이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초워류 생활·산업자재에서 첨단 미래산업까지

풍요한 생활을 창조하는-럭키

생활·산재부문

- **프라스틱 1사업부**: 하이샤시, UBR, SMC물탱크, 온돌파이프, 자동차부품 등
 ■ **프라스틱 2사업부**: 모노블, 렉스프롬, 노브록, 카펫타인, 민속관광, 비닐벽지 등
 ■ **생활용품사업부**: 수퍼타이, 하모니, 페리오치약, 차방삼부, 알로에비누, 풍봉 등
 ■ **화장품사업부**: 아르도피, 마루크, 예상선, 해나루빈디자인, 카이저 등
 ■ **정밀화학사업부**: 분산염료, 부공해물약원제, 계면활성제, 그리스, 헤어미 등
 ■ **의약품사업부**: 인타베트, B형 간염백신, 인간성장호르몬, 식욕촉진제 등

화성부문

- **회성 1사업부**: PVC 스트레이트 레진, 페이스트 레진, PVC 컴파운드 등
 ■ **회성 2사업부**: DOP, 옥탄올, 부탄올, 아크릴레이트, 아크릴산 등
 ■ **회성 3사업부**: ABS 레진, SAN 레진, PS 레진, EPS 레진 등
 ■ **엔지니어링프라스틱사업부**: PMMA, PB,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컴파운드 등
 ■ **폴리머필러사업부**: 신형지밀도 폴리에틸렌, 초저밀도 폴리에틸렌 등

국내외 합작회사

- * Lucky Allied Plastics Corporation
- * Lucky Fiber Glass Corporation
- * Lucky Dow Chemical Ltd. (EPOXY)
- * Lucky D. C. Silicone Co., Ltd.
- * Lucky Hoechst Corp. (HDPF)
- * National Plastic Co. (Saudi Arabia)
- * Henkel Rika Sdn. Bhd. (Malaysia)
- * Lucky Palmco Sdn. Bhd. (Malaysia)
- * Thai Wah Lucky Chemicals Co., Ltd. (Thailand)

럭키
LUCKY LTD

